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The Effect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Theoretical Process Model

이 선 경**
Lee, Seon Kyung

이 재 연***
Lee, Jae Yeon

ABSTRACT

The theoretical process model was used to study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growing up at-risk. A sample of 339 children living in at-risk families were selected from among 2, 134 children in grades 4, 5, and 6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five risk factor scales and four protective factor scales.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was also used.

The results of the hypothetical model of children at-risk showed that the factor of socio-economic status led to positive child rearing attitudes in mothers, which in turn influenc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directly. In contrast, stressful life events and mother's depression influenc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directly. However, negative family functioning, marital discord and father's depression did not influence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or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ir problem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influence problem behavior directly, but social competence influenced it directly.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children's adapt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은 발달과정상에서 일시

적으로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정상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까지 그 문제의 종류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정서, 행

* 본 논문은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정상 아동의 6~20%에 달하며 (Anderson, William, McGee, & Silva, 1987), 국내의 연구에서도 일반아동의 약 10% 정도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 1991). 아동의 문제행동의 유병률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 왔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불리한 사회적, 가족적,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기요인이라 한다. 즉, 위기요인이란 일반집단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아동이 어떤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정의되며(Garmezy, 1983), 어떤 위기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을 위기집단 또는 위기환경이라고 한다. Angold와 Costello(1995)는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위기요인으로 부모의 정신병리, 가족 역기능,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만성적인 질병, 빈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Seifer, Sameroff, Baldwin과 Baldwin(1992)은 위기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한 특정의 위기환경보다도 누적된 위기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위기환경 요인으로 어머니의 불안증, 부모의 낮은 직업수준, 낮은 교육수준, 소수민족, 대가족, 많은 생활사건, 부친부재, 경직된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 부모-자녀간의 빈약한 상호작용 양식의 10가지 변인을 들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위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Garmezy(1983)와 Rutter(1985) 등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보

이는 아동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는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호요인이라 한다. Garmezy(1985)는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특성, 가족 응집력, 유용한 외부적 지지체계가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이 높은 위기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가족 특성이나 아동의 긍정적 성격 등과 같은 중재변인인 보호요인이 양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기환경내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연구들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 및 환경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최근에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fford를 중심으로 한 Ontario Child Health Study의 종단적 연구(Offord et al., 1992; Rae-Grant, Thomas, Offord, & Boyle, 1989)는 위기요인으로 아동의 발달사, 가족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 세 요인 중 가족적 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아동의 좋은 학업 성적,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 좋은 친구관계, 능력, 여러 활동에의 참여, 자신감 등이 위기환경으로 부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Rutter(1990)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위기요인이나 보호요인이 아동에게 미치는 그 자체의 영향력보다 이들간의 '과정'이나 '매개' 개념의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두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이들 과정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위기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지

시켜 주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과 이의 효과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은 독립적이거나 분리된 개념이라기 보다 어떤 일정한 통로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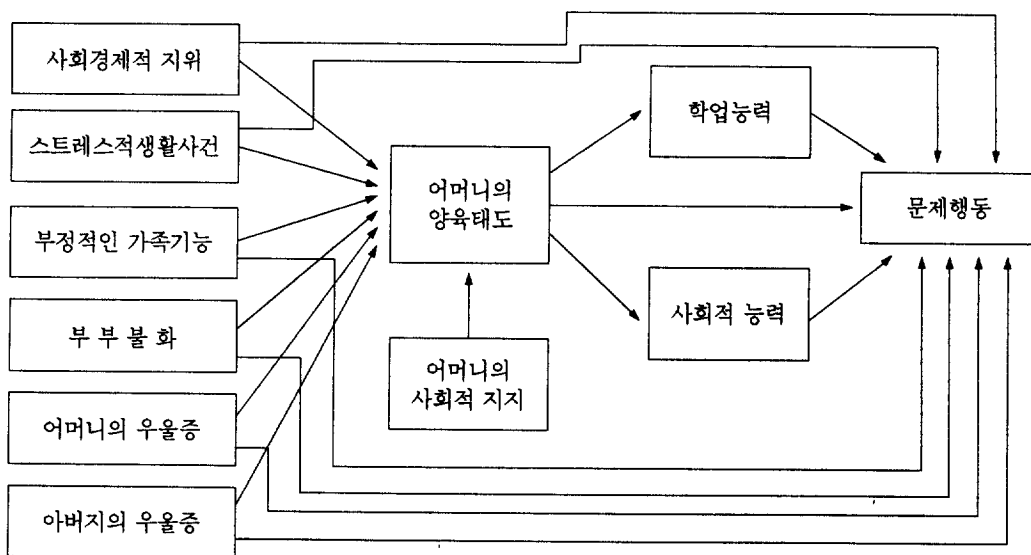
서구에서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통합적이면서 세부적인 연구가 20여년 전부터 수없이 진행되어 그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중다적인 위기요인의 개념으로 이를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실제 치료적인 적용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일반가정 중 위기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위기요인과 보호요인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6가지 위기요인과 4가지 보호요인을 설정하여 이들 요인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위기과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과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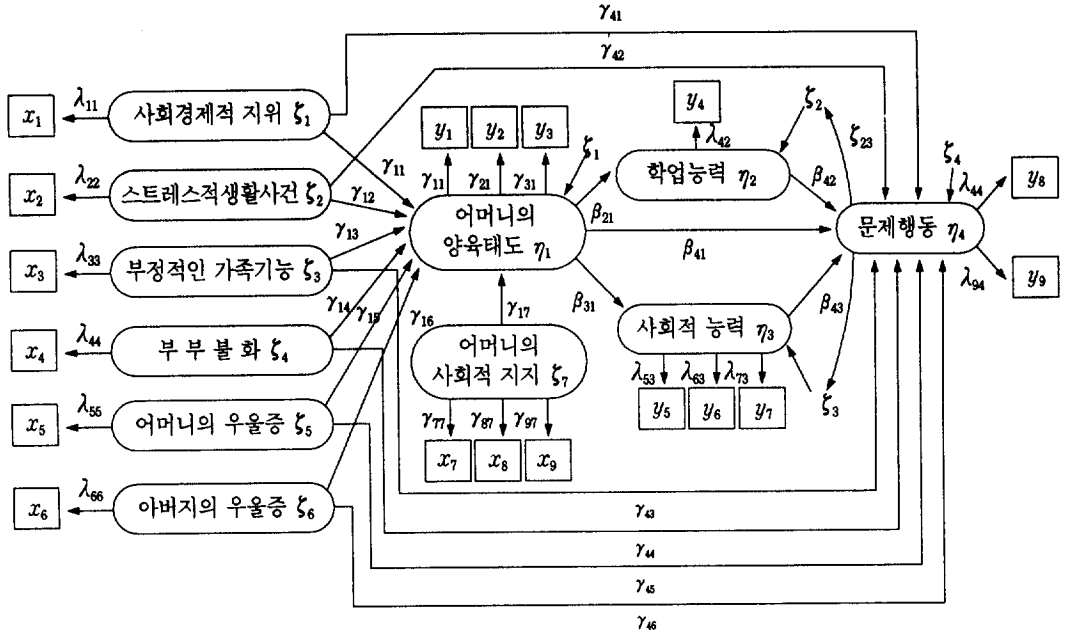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위기요인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부정적인 가족기능, 부부불화, 어머니의 우울증, 아버지의 우울증과 보호요인인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지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능력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과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생태학적 접근을 정신병리 이론에 적용시킨



〈그림 1〉 아동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델



〈그림 2〉 아동문제행동에 대한 가설적 모형

Sameroff(1995)의 이론을 토대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다(그림 1). 이 이론적 모델은 또한 McLoyd (1990)의 경제적 결핍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Geddes(1994)의 생활사건과 청소년 부적응간의 과정모델, Cummings와 Davies(1994)의 어머니의 우울증과 아동의 적응에 대한 개념적 모델과 Belsky(1984)의 부모역할 결정 요인의 과정모델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구체적인 가설적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외생변인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ζ_1 에서 ζ_6 은 하나의 측정변수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ζ_7)는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4개의 내생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η_1)와 사회적 능력(η_3)은 3개의 측정변수가 사용되었으며, 학업 능력(η_2)은 하나의 측정변수, 문제행동(η_4)은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1차 조사는 전체 표집대상자 중 위기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5개의 초등학교 4~6

학년 아동 총 2,134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아동용 질문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이 중 1,931부가 위기가정 선정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선정된 위기가정은 총 339가정이었다. 2차 조사는 선정된 위기가정에 속해 있는 339명 아동의 해당 학급 담임교사 52인에게 아동의 사회적 능력 질문지와 학업성적을 평정하였으며 총 339부의 자료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위기가정의 아동 총 3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위기가정 아동의 특성을 보면 총 339명 중 남아가 167명으로 49.3%, 여아가 172명으로 50.7%이었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이 116명(34.2%), 6학년이 115명(33.9%), 4학년이 108명(31.9%)의 순이었다. 또한 부모의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51.2%, 중졸 20.1%, 국졸이하 10.6%, 대졸이상 10%순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 47.9%, 중졸 29.9%, 국졸 13%, 대졸이상 8.8%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자 42.2%, 단순노무직과 피고용기능인 33.5%, 사무/기술직 14.4%, 관리직/전문직이 6%순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취업이 52.5%, 비취업이 47.5%이었으며, 가정의 월수입은 101~150만원 28.1%, 151~200만원 26.2%, 100만원 이하 18.5%, 201~250만원 12%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학력 및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이 낮으며 어머니의 취업률도 높아 본 연구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위기가정을 선별하기 위한 위기요인 측정도구와 보호요인에 대한 측정도구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도구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기요인 측정도구

위기요인 측정도구는 가능한 한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하여 위기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절단점(cut-off score)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5가지의 도구가 사용되었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근거로 평정하여 하류, 중하류, 중상류, 상류의 4가지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활사건 척도는 이평숙(1984)의 생활사건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하고 임정빈과 조혜정(1993)의 도구를 참조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42문항에 3점 척도로 경제 및 직업 변화, 건강문제, 부부관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기능 척도는 Epstein 등(1983)이 제작한 McMaster 가족평가도구(Family Assessment Device :FAD)중 일반적인 가족기능 척도만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기능척도(General Functioning Scale :GF)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과 병리를 측정할 수 있는 하위 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1이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기능이 건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병리적임을 나타낸다. 부부

불화 척도는 Kelso와 그의 동료들(1984)이 제작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The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MMS)를 번안하고 이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MS는 일상 가족생활에서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9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불화와 결혼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다.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Beck (1967)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BDI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의 우울증을 나타내며,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 집단에서 .91, 어머니 집단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기요인에 의한 위기가정의 선별은 Sameroff, Seifer와 Barocas 등(1987)과 Seifer 등(1992)의 위기가정 선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10가지 위기요인 중 4가지 이상의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높은 위기가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이들의 방법에 의해 특정한 위기요인수를 기준으로 위기가정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6가지 위기요인 중 2가지 이상의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기가정이라 정의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위기가정 선정을 위한 각 요인별 절단점의 기준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 표집대상자의 상,하위 percentile 점수 10~15%에 해당하는 기준점으로 이루어졌다.

2) 보호요인 측정도구

보호요인 측정도구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Sherbourne과 Stewart(1991)의 MOS (Medical Outcomes Study) 사회적 지지 척도를 번안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MOS를 요인분석하여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요인 I (7문항)은 '도구적 지지', 요인 II (6문항)는 '정서적 지지', 요인 III (6문항)은 '정보-평가적 지지'로 명명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83~.88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 유사한 문항들을 제외한 총 4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I (21문항)은 '온정-수용적 태도', 요인 II (14문항)는 '거부-통제적 태도', 요인 III (8문항)은

〈표 1〉 위기요인 측정도구의 일반적 특성

위기요인	측정도구	총 점수범위(점)	절단점	측정대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점수를 합쳐 평점화	3~18	6점 이하	어머니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이평숙(1984)의 생활사건척도를 기초로 수정, 제작	0~126	26점 이상	어머니
부정적인 가족기능	Epstein 등(1983)의 McMaster 가족평가도구중 일반적인 척도만 사용	12~48	30점 이상	어머니
부부불화 측정도구	Kelso 등(1984)의 결혼만족도	25~69	56점 이상	어머니
어머니의 우울증	Beck(1967)의 우울증 척도	0~63	21점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우울증	Beck(1967)의 우울증 척도	0~63	21점 이상	아버지

‘허용-방임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 α 계수가 요인별로 .91~.67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온정-수용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거부-통제 요인과 허용-방임 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esten (1976)의 Health Resources Inventory(HRI)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총 31문항으로 구성된 HRI를 요인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 I (17문항)은 ‘유능성’, 요인 II (11문항)는 ‘주장성’, 요인 III (3문항)은 ‘또래-사회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1~.9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성적을 평점화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난 2학기 동안 얻은 국어, 수학, 사회, 자연과목의 점수를 각 과목별로 평점화한 후, 이 4과목의 평점점수를 합산하여 학업성적으로 사용하였다.

3)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도구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이해련, 오경자, 홍강의와 하은혜(1991)가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하여 행동조사표라고 명명한 한국어판 CBCL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위 항목에 해당되는 8문항을 제외한 총 1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내면적 증상 72문항, 외면적 증상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내면적 증상에서 .92, 외면적 증상에서 .90이었다. 이 행동조사표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더 보인다고 할 수 있다. CBCL은 정상집단에서 임상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로, 오경자와 이해련(1990, 1991)이 제시한 절단점을 근거로 총 문제행동 점수 52점을 적용집단과 문제행동 집단으로 구분하는 절단점으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Ⅷ (J reskog & Sorbom, 1993)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은 양방적인 상호관계를 규정할 수 있고 잠재변수들간의 독립, 종속관계를 규정하며, 잔여치들 간의 상관관계와 실제 측정변수들 간의 측정오차를 규정하고, 잠재변수들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정현숙, 1994). LISREL의 결과는 개별적 계수(parameter)와 모형의 부합도(goodness of fit)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여 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 검증을 하였으며, χ^2 의 여러 지수를 이용하여 부합도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위기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여 이들 요인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18개의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외생변수 중 위기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r=.03\sim.24$ 까지로 변인들의 반 이상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부부불화간의 상관관계가 $r=.5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 중 외면적 증상은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과 정적,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내면적 증상은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어머니의 우울증과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과만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외면적 증상이 제 변인과의 관련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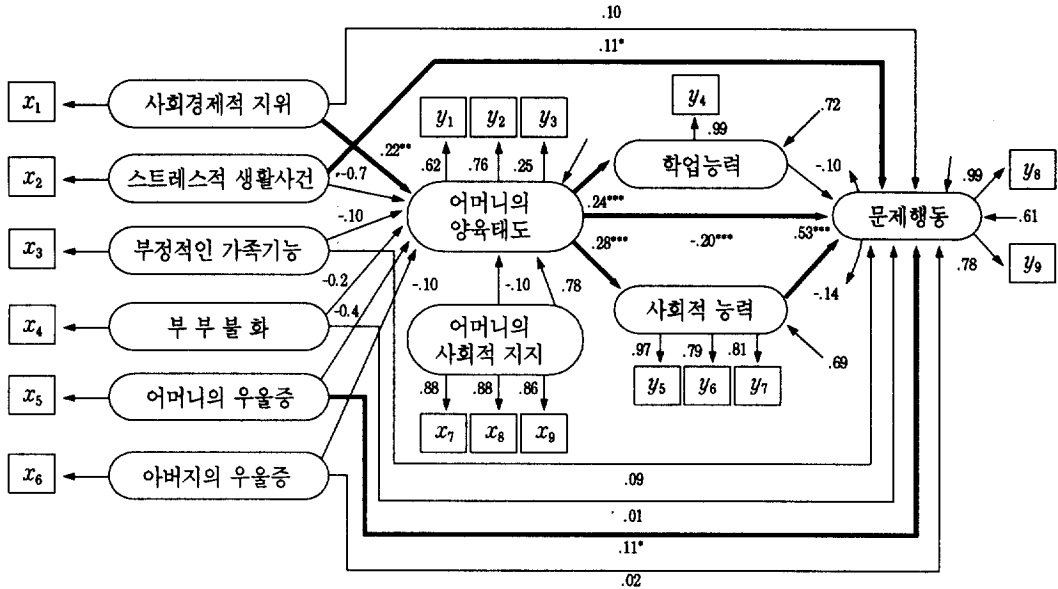
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분석

가설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는지를 나타내 주는 부합도 지수 가운데 본 연구의 Chi-Square(x^2)는 229.83($p=.00$), $df=103$ 으로 .05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x^2 값은 표본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이제곱치와 자유도간의 비율을 이용한 표준카이제곱치가 더 선호되어지고 있다. 이 비율이 2~3이하이면 비교적 잘 맞는 부합도를 나타낸다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의 x^2/df 는 2.4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치나 표준카이제곱치가 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는 결정적인 지수는 아니며, 특히 카이제곱치값이 클 때에는 다른 부합도 지수를 살펴 보아야 한다. 부합도 지수에서 GFI(합치도 지수: Goodness of Fit Index)와 AGFI(조정된 합치도 부합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로 .90이상인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GFI는 .93, AGFI는 .89로 비교적 잘 부합되는 모형임을 나타냈다. 또한 RMSR(원소간 평균차이: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분석자료가 상관자료이면 .05이하일 때 잘 맞는 모형이라고 간주하지만, 공변량자료가 분석자료인 경우는 분석자료의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들의 크기를 고려하고 다른 부합지수를 함께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순목, 1990). 본 연구의 RMSR은 3.24로 나타나 한계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변량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의 범위가 상당히 크므로 RMSR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보완수단으로 RMSEA(근사 원소간 평균차이: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는데 .05~.08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조선배, 1996). 본 연구의 RMSEA는 .06으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부합지수를 종합하여 보면 x^2/df , GFI, AGFI, RMSEA에서 적절한 부합도를 보여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3.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경로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3〉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는 그림 3으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gamma_{11}=.22$)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스트레스적 생활사건과 어머니의 우울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들 요인이 아동의 문제행동($\gamma_{42}=.11, \gamma_{45}=.11$)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외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부부 불화, 아버지의 우울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생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

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능력($\beta_{21}=.24$) 및 사회적 능력($\beta_{31}=.28$)과 문제행동($\beta_{41}=-.20$)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 능력은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능력은 문제행동($\beta_{43}=-.1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오차변량간의 관계는 $\psi_{23}=.52$ 로 이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생변인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은 높은 반면 문제행동은 적게 보이며,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그림 3에서 보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 총효과(TE)는 직접효과(DE)뿐 아니라 간접효과(IE)를 포함하는 효과로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의미있는 정적 직접효과(DE = .22, t = 2.70)가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간접효과(IE = -.06, t = -2.23)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능력(IE = .05, t = 2.25)과 사회적 능력(IE = .06, t = 2.36)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중재 효과로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와 문제행동에 대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DE = .11, t = 2.03)와 총효과(TE = .13, t = 2.31)가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증의 양육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문제행동에 대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DE = .11, t = 2.04)와 총효과(TE = .12, t = 2.06)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적 생활사건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중재변인을 통해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행동

〈표 3〉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는 t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22***	--	.22(2.70***)		
외 생 변 인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07	-.07(-1.08)	양	
	부정적인 가족기능	-.10	-.10(-1.43)	육	
	부부불화	-.02	-.02(-.24)	태	
	어머니의 우울증	-.04	-.04(-.64)	도	
	아버지의 우울증	-.10	-.10(-1.40)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10	--	.10(1.63)	
사회경제적 지위	.00	.05(2.25*)	.05(2.25*)	학업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00	.06(2.36*)	.06(2.36*)	사회적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10	-.06(-2.23*)	.05(.91)		
외 생 변 인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11*	.02	.13(2.31*)	문
	부정적인 가족기능	.09	.03	.12(2.01)	제
	부부불화	.01	.01	.02(.34)	행
	어머니의 우울증	.11*	.01	.12(2.06*)	동
	아버지의 우울증	.02	.02	.04(.62)	
	어머니의 양육태도	.24***	--	.24(3.49***)	학업능력
어머니의 양육태도	.28***	--	.28(3.97***)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양육태도	-.20**	-.05(-2.69**)	-.26(-3.60***)	문제행동	
내 생 변 인	학업능력	-.10	--	-.10(-1.60)	문제행동
	사회적능력	-.14*	--	-.14(-2.15*)	문제행동

* p<.05 ** p<.01 *** p<.001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부정적인 가족기능은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부부불화와 아버지의 우울증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내생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업능력($DE=.24, t=3.49$) 및 사회적 능력($DE=.28, t=3.97$)과 문제행동($DE=-.20, t=2.80$)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부적인 간접효과($IE=-.05, t=-2.69$)와 총효과($TE=.26, t=-3.60$)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증재효과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총효과($TE=.26$)가 다른 유의한 효과들보다 크게 나타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위기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과정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 중 6가지 위기요인과 내생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McLoyd (1990)의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하류층이거나 빈곤 그 자체가 아동의 적응을 부정적으로 유도하기 보다 빈약한 가족환경으로 인한 지적, 사회적 자극의 결여나 정상적인 양육태도가 결여됨으로 인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스트레스적 생활사건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 그 자체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Holahan과 Moos(1987)의 연구와 어머니의 우울증이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Fendrich 등(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한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외 부정적인 가족기능, 부부불화와 아버지의 우울증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과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인 부부불화보다 아동이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며,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Grych & Fincham, 1990)는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부부불화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우울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아버지의 우울증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신병리가 아버지의 정신병리보다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더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Keller 등(1986)의 보고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우울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머니의 그 비율보다 낮았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인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외한 다른 위기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포함시키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제외시켰으며,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위기요인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외생변인 가운데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에게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기여한다는 이전의 연구들(Jennings et al., 1991; Roberts, 1986)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Simons 등(1993)

의 주장과 사회적 지지가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한 양육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내생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며, 아동이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Cohn(1990)의 연구와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위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부터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는 Jenkins와 Smith(1990)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 능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능력은 문제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능력 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이 학업 능력보다 아동의 적응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위기요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통로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어머니의 우울증이 부부불화나 아버지의 우울증보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위기요인의 영향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해 주고 적응적인 발달을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가정

의 어머니를 위한 양육태도 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증을 제외한 위기요인의 대부분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머니를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이는 아버지와 아동이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제외된 측정상의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와 학년차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차이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셋째, 위기가정 선정상의 문제로 각 위기요인의 절단점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2가지 이상의 위기요인에 해당하는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선별하여 위기가정내에서도 각 위기요인들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산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기요인 및 보호요인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합한 이론적 과정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 및 가족을 치료하는 임상현장에서 각 아동 및 가정만의 독특한 위기요인과 보호요인간의 통로를 파악하고, 이에 가장 적절한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1991).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1 :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L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1), 33-55.
-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성원사.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98-113.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1991). 문항 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임정빈, 조혜정(1993). 도시 가정의 생활사건 요인구조와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1(4), 115-132.
- 정현숙(1994). 공변량 구조분석.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pp.307-347). 하우.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영지문화사.
- Anderson, J., Williams, S., McGee, R., & Silva, P.(1987). DSM-III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 Prevalence in a large sampl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69-77.
- Angold, A., & Costello, E.S.(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 Reviews*, 17, 74-8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 Development, 55*, 83-96.
-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ummings, E.M., & Davies, P.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3-112.
- Cummings, E.M., Davies, P.T. & Simpson, K.S.(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Davies, P.T., & Cumming, E..M(1994).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pstein, N.B., Baldwin, L.M., Bishop, D.S.(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71-180.
- Fendrich, M., Warner, V., & Weissman, M.M.(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Garmezy, N.(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 Supplement No. 4* (pp.213-233).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Ge, X., Conger, R., Lorenz, F., & Simons, R.(1994). Parents' stress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8-44.
- Gesten,E.L.(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775-786.
- Grych, J.H., & Fincham, F.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etin, 108*, 267-290.
- Holahan, C.J., & Moos, R.H.(1987). Risk, resista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 longitudinal analysis with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3-13.
- Jenkins, J.M. & Smith, M.A.(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in disharmonious hom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0-69.
- Jennings, K.D., Stagg, V., & Connors, R.E.(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J reskog, K.G., & Sorbom. D.(1993). LISREL VIII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Mooresvill, IN : Scientific Software.
- Keller, M., Beardslee, W., Dorer, D., Lavori, P., Samuelson, H., & Klerman, G.(1986). Impact of severity and chronicity of parental affective illness on adaptive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930-937.
- Kelso, J., Stewart, M.A., Bullers, L., &

- Eginton, R.(1984). The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A questionnaire to screen parents for marital problems. *Child Psychiartry and Human development, 15*, 86-103.
- McLoyd, V.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Offord, D.R., Boyle, M.H., Racine, Y.A., Fleming, J.E., Cadman, D.T., Blum, H.M., Byrne, C., Links, P.S., Lipman, E.L., MacMillan, H.L., Rae-Grant, N.I., Sanford, M.N., Szatmari, P., Thomas, H., & Woodward, C.A.(1992). Outcome, prognosis, and risk in a longitudinal follow-up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916-923.
- Rae-Grant, N., Thomas, B.M., Offord, D.R., & Boyle, N.M.(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262-268.
- Roberts, W.L.(1986). Parents stressful life events and social networks: Rel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ren's compet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132-146.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 598-611.
- Rutter, M.(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S. Masten, D. Cicchetti, K.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81-214).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off, A.J.(1995). General systems theory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s* (pp.659-695). New York: John Wiley & Sons.
- Seifer, R., Sameroff, A.J., Baldwin, C., & Baldwin, A.(1992).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893-903.
- Sherbourne, C.D., & Stewart, A.L.(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Medicine, 32*, 705-714.
- Simons, R.L., Lorenz, F.O., Wu, C., & Conger, R.D.(1993). Marital and spouse support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29*, 368-381.